



금강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국사 2024 ISSN 1727—9062

1

주체113(2024)
루계 제413호 월간

표지: 주물품생산자들의 기쁨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면서도 여러가지 창의고안을 받아들여 주물품들의 질을 최대로 보장해가는 락원기계종합기업소 로동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어려있다. 대중적인 기술혁신에 의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유압식 만능삽차와 각종 굴착기 등의 성능은 보다 제고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

2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해외동포들이 삼가 올린 선물

일화

26 || 위민헌신의 나날에

27 || 위대한 변혁의 2023년

반향

32 || 무궁한 번영을 담보해가시는 희세의 위인

33 ||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34 || 구국군과 함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36 || 중기계생산에 박차를

40 ||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어

방문기

41 ||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아서

44 || 청년들의 애국열

46 || 새해를 축하합니다

좌담회

47 || 무용창작지원체계 《를동》

조국의 품에 안겨

50 ||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52 || 자유분방한 필치로 이름남긴 심사정

54 || 조선의 단청 처마무늬

력사이야기

55 ||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민족의 향기

56 || 민족음식 떡

편집: 김광수, 최은혁, 서철남, 로윤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의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이 일치단합된 투쟁으로 이룩한 2023년의 승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새년도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책정짓는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제112(2023)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었다.

총비서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불철주야의 정력적인 령도활동으로 이 땅위에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주시고 강국조선의 존위와 명성을 만방에 떨쳐가시는 우리 당과 국가의 탁월한 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며 우렁찬 《만세!》의 환호를 더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



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 성, 중앙기관, 도급지도적기관과 시, 군, 중요공장, 기업소 책임일군들, 농업생산에서 모범적인 시, 군농업경영위원장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었다.

1.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

2.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

3.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

4.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5.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6. 조직문제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일치가결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보고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정형총화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위대한 사변과 만

족한 결실들로 가득찬 2023년도의 투쟁이 제8기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성과를 결정짓는데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현실적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올해는 당 제8차대회가 내세운 투쟁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완강히 전진하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당대회결정의 운명이 달려있다고도 할수 있는 올해의 투쟁에서 우리는 주체적힘,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확정된 혁명과업을 과감히 해결해나가는 우리 당, 우리 인민고유의 백절불굴의 기상을 다시한번 과시하였으며 이 과정에 나라의 전반적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해의 투쟁을 통하여 예정하였던 5개년계획수행의 세번째 년도를 단순히 경과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

의 각 방면에서 앞으로의 전진속도를 더욱 가속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든든한 발판을 구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쟁취하였습니다.

당 제8차대회이후 한해한해가 미증유의 기적과 변혁들로 기록되였지만 올해처럼 경이적인 승리와 사변들로 충만된 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일어난 변화가 아닙니다.

올해에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고비와 조련치 않은 국면에 직면한 속에서 한해 진군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3년나만 지속된 국제적인 공중보건비상사태가 해제된 이후로도 국가적으로 실시한 엄격한 방역 조치로 하여 모든 부문이 많은 제약을 받았고 적대세력, 방해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박에도 대처해야 했고 험악한 안전환경에도 대응해야 했

으며 더우기 급박한 문제로 나선것은 지난해 농사를 잘 짓지 못하여 산생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것이였습니다.

이러한 형세는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세번째 해의 목표달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겠는가 아니면 직면한 난국을 넘기는데로 모든것을 지향하겠는가 하는 량자택일의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결단은 우리가 다같이 선택한바와 같이 멈춤없는 계속전진, 줄기찬 투쟁이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조성된 불리한 형세와 필수적으로 나선 중대과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통해 파감한 목표와 적극적인 방략을 확정하고 전당에 포치하였으며 그 집행을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올해 투쟁의 발전지향성과 성공적수행을 담보하였습니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개괄되였다.

알곡은 103%, 전력, 석탄, 질소비료는 100%, 압연강재는 102%, 유색금속은 131%, 통나무는 109%, 세멘트, 일반천은 101%, 수산물은 105%, 철도화물수송량은 106%이고 살림집은 건설중에 있는 세대수가 109%로서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가 모두 점령되였으며 전동기는 220%, 변압기는 208%, 베아링은 121%, 전기아연은 140%, 연은 121%, 종이는 113%, 소금은 110%, 화장품은 109%, 판유리는 100%, 마그네샤코링카는 104%로 증산한것을 비롯하여 경제전반에서 뚜렷한 생산장성과 계획규률수립이라는 진전을 가져왔다.

2023년도 경제부문의 총적인 장성 규모는 당 제8차대회이전인 2020년에 비해 삼화철은 3.5배, 선철은 2.7배, 압연강재는 1.9배, 공작기계는 5.1배, 세멘트는 1.4배, 질소비료는 1.3배로 중요지표생산량이 크게 장성하였으며 국내총생산액은 1.4배로 늘어났다.

보고에서는 전반적인 경제발전과 인민생활보장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지배적고지인 알곡생산 목표를 넘쳐 수행한것을 2023년도 경제사업에서 달성한 가장 귀중하고 값비싼 성과로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자신의 열의와 자신심이 비할바없이 높아지고 기쁨넘친 결산분배모임이 전국의 농장들에서 련이어 진행된것은 농장원들의 정신상태에서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2023년도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쟁취한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하여 더없이 소중한 변혁중의 진짜변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단위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앙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온데 대하여 소개하시면서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의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의 량곡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며 이 단위들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자는것을 정중히 제의하시였다.

전원회의는 **김정은**동지의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보고는 광천닭공장이 가금부문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건설되고 사리원시와 해주시, 남포시





에 현대적인 밀가공공장들이 꾸러졌으며 황주군 등물길공사와 강령호담수화공사, 수천정보의 간석지외부망건설이 완공되고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목표달성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축성된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새 시대 농촌혁명강령, 농업정책의 정당성 그리고 시련과 난관앞에 주춤함이 없이 농업생산의 근본적변혁을 위한 투쟁에 온 나라를 불리일으킨 우리당 령도력의 뚜렷한 증거이라고 언급하였다.

보고에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제일 큰 힘을 넣어온 중대국사인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에서 혁혁한 성과가 이룩된데 대하여 평가되었다.

건설부문에서는 화성구역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또다시 일떠세워 이제 오는 태양절에 수도 시민들을 입사시킬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으며 청년건설자들은 서포지구의 4 100여세대 살림집건설을 과감히 내밀어 전위거리라는 새로운 청춘

기념비를 떠올리었다.

당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명령지시 집행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군대는 수도의 살림집건설뿐 아니라 지난 4년동안 검덕지구에 2만여세대의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새 산악협곡도시의 장관을 이루어냈으며 강동온실농장건설도 2024년 2월명절까지 완벽하게 결속될수 있게 하였다.

농촌살림집건설계획은 2022년의 두배이상인 5만 8 000여세대로서 40여개의 시, 군들에서는 이미 건설을 끝내였으며 다른 시, 군들에서도 새년도 봄철까지 계획된 살림집건설을 전반적으로 완공하게 된다.

보고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과정에 기간공업부문이 뚜렷한 생산장성을 가져오고 정비보강대상들이 많이 준공된것을 비롯하여 매우 고무적인 성과

들이 이룩된데 대하여 개괄하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당중앙위원회가 맡겨준 기계제품생산을 제2의 천리마 정신창조과정, 대중적기술혁신과정으로 전환시켜 대형압축기들을 훌륭히 제작해내는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경제부문에 잠복해있는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에 된타격을 안기였으며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는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수많은 대상설비들을 생산하는속에서 자력갱생, 건인불발의 투쟁으로 제작해낸 대형압축기들을 이번 전원회의앞에 당당히 내놓은룡성로동계급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였다.

보고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에너지기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건설과 1만 5 000m³/h 산소분리기들의 설치공사,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유도로설치공사와 청진제강소 수직식산화배소구단광로건

설, 은률광산 서해리분광산개발이 계속되어 이미 조업에 들어간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2023년을 금속공업부문이 주체화, 현대화실현에서 크게 약진한 해로 평가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질소비료를 영농공정에 앞세워 생산보장하고 서해지구의 온실농장들을 위한 순천화학련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을 준공하였으며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뇨소합성공정증설과 청정공정보강을 끝내고 송전선공사까지 완료하여 비료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는 실질적인 담보를 마련하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화력발전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고 수력발전소들의 발전효율을 높이면서 수요에 의한 월별 생산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하였으며 주요송전선로들에 최량화된 전력계통을 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 막대한 전력도중손실을 줄이고 초고압철탑

가공공정을 확립한것도 매우 의의있는 성과이다.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에서 새세기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오르고 그를 발화점으로 하여 석탄공업부문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이 확산된것은 인민경제 전반의 증산투쟁을 양양시키는 기폭제로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에 큰 힘으로 되었다.

보고는 채취, 건재, 립업, 경공업, 수산업,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경제부문들에서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면서도 정비보강전략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현행생산과 전망생산을 확고히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으며 정보산업, 국토환경, 도시경영부문들에서도 물질기술적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절실하고 기초적인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척시킨데 대하여 평가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3년을 과학기술부문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 해로 총화하시면서 제일 자부할만한 과학기술성과는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확고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로 기어이 우주를 정복할 필사의 각오로 달라붙어 거듭되는 실패를 딛고 일어나 끝끝내 정찰위성발사를 성공시키는 경이적인 사변을 안아왔습니다.

이것은 당과 혁명의 요구라면, 나라의 국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과학의 요새도 반드시 점령하고야마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닌 혁명적본매와 총명한 두뇌실력에 대한 유감없는 파시로 됩니다.

올해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교육사업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난것은 무엇에도 비길데 없는 자랑찬 성과입니다.

나라의 백년대계, 국가발전과 번영의 전도를 걸머지고있는 교육부문에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존속되어오던 교육구조를 학생들에게 보다 선진적인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줄수 있게 전반적으로 고치는 사업을 본격적인 실행단계에서 추

진하였으며 교육내용과 형식, 방법에서도 참신하고 혁신적인 많은 질적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교육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교육과학연구중심기지인 교육연구원이 새로 건설되고 김일성종합대학 과학도서관이 현대적으로 일신되었으며 전국적으로 160여개의 학교와 유치원들이 본보기수준으로 신설되거나 개건된것을 비롯하여 올해 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에서도 확실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보고는 2023년의 새로운 변화를 안아오는데서 보건부문과 체육부문도 특색있는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치료예방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제약공장들과 의료품공장들, 질병예방전문시설이 새로 건설되어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이후 근 4년만에 국제경기에 출전한 우리의 체육인들은 제19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제22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 2023년 국제력기련맹 그랜드상경기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쟁취하고 세계기록들을 련이어 돌파하여 우리 국기를 세계의 하늘가에 높이 휘날림으로써 온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고무를 안겨주었다.

보고에서는 각 도들에서 당결정관철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여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문명창조에서 진일보를 이룩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특히 황해남도에서 지난 시기 영농사업에서 나타나던 여러가지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교양과 투쟁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과학농사추진조의 역할을 높여 알곡수매계획을 수행한것은 그 누구보다도 농사의 주인인 도안의 시, 군당위원회들과 농업부문 당조직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특별히 수고를 많이 한 결과이라고 평가하였다.

어느 도에서나 당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반영된

과학기술도서관과 학생교복공장, 신발공장, 표준약국들을 건설하며 고려약공장들을 개건현대화하고 육아정책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부글부글끓는 격양된 투쟁분위기와 일본새가 년중 지속적으로 견지되었으며 발전소와 축산농장, 소년단야영소, 야외극장, 대학, 전염병예방원, 기초식품공장, 산림과학연구소, 젓소목장, 항공구락부를 비롯하여 전망적이면서도 당면한 경제적수요와 지역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할수 있고 새시대의 건축미학적요구에도 부합되는 수많은 대상들이 새로 일떠선것으로 하여 2023년은 각 지방들에서도 내놓고 자랑할만한 창조물들이 눈에 띄게 많아진 명실상부한 변혁의 해로 되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된것을 2023년도 투쟁의 가장 의의있는 성과로 총화하시였다.

우선 국가주권활동과 인민주권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획기적인 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공화국헌법에 국가핵무력강화정책을 고착시킨것은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영원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나라의 존엄과 전략적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운 동시에 적들에게 치명적인 심대한 타격을 안긴 정치적사변으로서 조국청사에 당당한 한페지로 기록될것입니다.

당정책적요구와 현실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며 법적으로 규제하지 못한 공간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기 위한 법제사업이 적극화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감독법, 판개법, 수재교육법, 생산력배치법, 공무원법을 비롯한 110여건의 부문법과 규정들이 새로 제정되거나 수정보충됨으로써 우리의 우월한 국가사회제도를 일층 공고히 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가 구축되게 되었습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방법이 공화국의 인민적성격을 부각시키고 주권기관 사업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보다 민주주의적으로 개선된것으로 하여 지난 11월에 진행된 도, 시, 군인민

회의 대의원선거가 국가정사에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참여하려는 인민들의 공민적자각과 애국열의를 한층 고조시키는 과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인민정권기관 사업을 당과 국가, 인민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도, 시, 군인민위원장들을 위한 제1차강습회가 당중앙위원회직인 사업으로 진지하게 진행된것도 우리의 주권기관, 정권기관의 역할을 일층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대회를 얼마 하지 않았지만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한 소년단원대표들과 새해시작을 같이하고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 참가자들과 한해 사업의 마감시기를 뜻깊게 같이한것이 올해의 중요한 특징이면서도 우리 투쟁의 진정한 목적과 성격을 부각시키는데서 매우 의의가 컸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고에서는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조국수호, 혁명사수의 비상한 열의속에 애국미헌납운동과 함선헌납운동과 같은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으며 《소년》호, 《대학생청년》호, 《직맹》호, 《농근맹》호, 《녀맹》호, 《부사수》호로 명명된 방사포, 장탄차, 빠스들이 증정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

대중적인 애국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과정에 당과 혁명,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가시는데 보탬을 주려는 뜨거운 마음을 지닌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성장한것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가장 커다란 정치적성으로 된다.

력대수준을 계속 초월하며 조선인민군창건 75돛,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 공화국창건 75돛을 계기로 세차레나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을 비롯한 대정치군사축전들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존엄과 위신, 일심단결된 참모습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보고는 2023년에 우리 당의 혁명적면모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새로운 개선이 이룩된데 대하여 총화하였다.

새시대 5대당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와 전투력강

화의 백년대계를 담보하는 중핵적이고 혁신적인 당사업체제와 방법들이 연구, 실행되었다.

전당적으로 강력한 당원대대들을 조직, 파견하여 량강도의 농촌살림집건설을 도와주는 사업과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성, 중앙기관들이 뒤떨어진 농장들을 맡아 추켜세우는 사업들이 작전되고 전개된것은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뒤떨어진 단위들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철저한 구현으로서 우리 당사업에서의 또 하나의 귀중한 진일보로 된다.

보고는 국권수호, 존엄수호를 위한 대적투쟁과 국방력강화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국가방위력의 중요구성부분이고 초강력의 전쟁억제력인 핵무기발전을 더욱 다그치는 선상에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과 《화성포-18》형시험발사와 발사훈련을 여러차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그 신뢰성과 우월성을 검증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의 전망적인 전략무력건설방향을 확정하였다.

적들의 광란적인 전쟁연습책동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술탄도미싸일과 순항미싸일발사훈련들을 비롯한 중요군사활동들이 공세적으로 조직진행되고 무인정찰기와 다목적무인들이 개발되었으며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진수식을 통해 공화국무력의 무비한 림전태세와 발전상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특히 우리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켜 우주정찰자산을 보유한것은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공화국무력현대화의 선결중대과업실현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힘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상승시킨 일대 장기로 된다.

우리 당이 대외사업에서 강한 자주적대와 원칙성을 견지하면서 주동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한 결과 나라의 존엄과 위상이 비상이 높아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주권적권리를 굳건히 지켜낸데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총적으로 2023년은 국력제고에 있어서나 국위선양에 있어서 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발전행로에 큰 자욱을 새긴 명실공히 위대한 전환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이라고 하시면서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인한 분발력과 과감한 노력으로 부흥발전의 새 국면을 힘차게 떠밀어온 우리의 로동당원들과 성실한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오로지 우리 위업에 대한 굳센 믿음과 진함없는 불굴의 정신으로 온갖 애로와 곤난을 박차며 2023년을 총성과 애국의 성과물들로 가득 채우는데 공헌한 전당의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3년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의 기초를 든든히 닦고 지속적발전으로 나아갈것을 목적인 5개년계획을 능히 완수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상태에서 커다란 긍정적변화가 일어나 혁명적열의와 투쟁기세가 대단히 앙양되고 모든 부문이 활기를 띠고 기운차게 일떠서고있는것은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가 견인발발하여 공세적인 투쟁을 벌린 결과 쟁취한 유리한 형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전진과 발전에 있어서 제일 소중하고 힘있는 밑천을 가진것으로 되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당대회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 극한점을 돌파하였다고 확실하게 자부할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혁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에 들어와 국방분야만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가 동시에 일어서고 수도만이 아니라 지방들도 다같이 변모되며 도시와 마을, 산천뿐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정신면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시대를 열어제끼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경험은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하

고 당에 대한 전체 인민의 신뢰가 굳건한 조건에서 부닥친 난국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기세를 견지하면서 주도세밀하고 진지하게 사업한다면 난관극복, 변화발전의 중대과제를 능히 성과있게 달성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당 제8차대회가 밝힌 투쟁강령이 전례없이 혹독한 난관속에서도 우리 혁명의 전진발전을 힘있게 견인하는 가장 정확하고 강위력한 기치라는것을 실증하고있으며 앞으로 2년간의 련속적인 투쟁에 의해 빛나게 실현될것이라는 락관과 확신을 가지게 하고있습니다.

보고는 앞으로의 더 빠른 전진과 발전을 위해 성과와 경험보다도 결함과 교훈에 더 관심하는 우리 당의 혁명적립장으로부터 비판적, 발전적 견지에서 한해 사업을 전면적으로 투시하고 그에 배태되어있는 결점들을 맹렬히 분석총화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전원회의 참가자들이 2023년의 투쟁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 앞으로의 우리 사업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깊이 자각하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2024년의 사업에서 맡은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첫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내각총리 김덕훈동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리철만동지, 국방상 강순남동지,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 조용원동지가 자기 부문 사업정형을 검토총화하고 대책적문제들을 전원회의에 제기하였으며 여러 부문 지도간부들이 서면토론을 제출하였다.

전원회의는 토론들을 청취, 분석하고 해당한 평가를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하여》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3년도 당 및 국가정책집행과정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투쟁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이제 우리앞에는 5개년계획기간이 2년 남아 있습니다.

이 2년간에 우리는 배가된 분발과 분투로써 당 제8차대회가 결정한 투쟁방침과 지금까지 헤쳐온 전진력정이 백번 옳았다는것을 실증하여야 하며 보다 거창한 성과들을 이룩하고 자기의 투쟁을 당대회앞에 총화받아야 합니다.

금후 우리의 총적투쟁방향은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남은 2년간을 당 제8차대회 결정집행을 착실하게 결속하면서 다음단계의 새로운 발전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해부터 당대회결정관철에서 미진되고있거나 걸림돌로 되고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 지금까지의 성과가 더욱 확대되고 은을 나타내게 하며 계획한 모든 과제들이 빛나는 결실로 전환되게 하여야 합니다.

2024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공격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입니다.

다시말하여 2024년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간고하고 준엄했던 시련의 고비들을 과감히 돌파한 자신심을 가지고 더욱 앙양되고 분발된 투쟁으로 2024년을 새롭고 의의있는 성과들로 빛내어야 합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선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국가적인 행정경제사업체제와 질서를 강화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각이 헌법이 부여한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의 임무에 맞게 국가경제의 명맥을 살리고 목적지향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실천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장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새년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중점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결론은 기계공업의 모체인 통성기계련합기업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현대화의 표준, 본보기로 만들고 그 경험에 토대하여 새로운 5개년경제발전계획기간에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락원기계종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는것을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기계공업발전방향으로 확정하고 그 실행을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밝히였다.

결론에서는 수도건설과 제8기 당중앙위원회가 력사적인 결단을 내려 시작한 중대과제인 농촌살림집건설을 더욱 박력있게 추진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과 당중앙이 구상하고있는 웅대한 전망건설계획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또한 국토환경보호부문과 도시경영부문에서 5개년계획에 반영된 단계별과업들을 착실히 추진하며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재해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년차별로 강력히 실행할데 대하여 언급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농업하부구조실태와 농업기술력을 조사평가한데 기초하여 농기계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강하게 내밀며 나라의 관개체계를 완비하는 사업과 간석지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력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전국적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해주는 사회적분위기와 풍조를 더욱 고조시키고 량정규률을 엄격히 세우며 밀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여러 지역에 밀가공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밀가공기술을 개선하여 제품의 질을 높일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결론에서는 경공업부문에서 2024년에 인민소비품, 기초식품의 질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투쟁을 벌리며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잠업부문을 발전시키며 상업, 급양,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언급되였다.

원양어로를 적극화하고 양어, 양식부문에서 품종수, 어종수를 늘이며 특히 바다양어를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증대시키는 등 수산부문앞에 나선 과업들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기간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윤택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제공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지적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으로 향한 오늘의 투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치를 들고 부단히 약진하여야 할 문화분야에서 지난 3년간 특히 2023년의 사업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토대하여 문화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더 힘찬 진군보폭을 내짚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결론에서는 중심적이고 건인력이 강한 첨단과학기술발전계획을 목적지향성있게 설정하고 과학연구력량을 집중하여 집행해나가는 체계를 세우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통일적으로 지휘관리하는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력의 부단한 증대, 과학기술중시의 실제적인 생활력으로 사회적진보와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목표들과 방도들이 제시되였다.

결론에서는 전공관련과목들에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교육내용과 방법을 더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하며 당정책실현을 교육학적으로 담보함으로써 우리의 교육이 선진국수준에 따라서게 만드는데서 2024년이 더 큰 변혁의 해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되였다.

우리의 인민보건, 사회주의보건시책을 정확히 실시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상문화전선의 제일선을 지켜선 문학예술, 출판보도부문에서 2024년에 자기 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전당, 전국, 전민의 양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키고 체육부문에서 2023년에 거둔 자랑스런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결론은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강력한 정치적무기인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인민주권기관들과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법기관들앞에 나서는 정책적과업들과 근로단체사업을 더욱 활기차고 박력있게 조직 전개해나가기 위한 실천방도들을 명시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핵전쟁접경에 이른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과 적대세력들의 군사적대결책동의 성격을 분석평가하시고 국가방위력의 급진적발전을 더욱 가속화해나갈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을 천명하시였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은 여전히 악랄하게 감행되었으며 그 무모성과 도발성, 위협성은 사상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놈들의 발악은 극한에 달하고있습니다.

조선반도지역의 정세불안정을 유발시키고 계속 악화시켜온 미국은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지금 이 시각까지도 우리 국가에 대한 각이한 형태의 군사적위협을 가해오고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실현하는데서 가장 충실한 줄개, 《충견》역할을 놓고있는 남조선놈들과 일본놈들을 보다 집요하게 끌어들이 량자, 3자협력확대를 꾀하며 반공화국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안보불안을 떠안고있는 남조선놈들의 리해관계와 맞아들어가면서 올해 들어 더욱 우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미국대통령은 우리의 《정권종말》까지 공개적으로 운운하면서 남조선놈들과 반공화국핵대결강령인 이른바 《워싱턴선언》을 조작하고 핵무기사용의 공동계획 및 실행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신설, 가동시켰으며 이를 도용하여 공공연히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에게 대한 핵전쟁흉계를 극구 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일본, 남조선놈들과 빈번히 모여앉아 장기적인 반공화국공모결탁을 약속하고 대응방안론의와 3자

훈련의 년례화를 실시하는 등 우리의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당치않은 구실을 내걸고 3각공조체제강화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의 도발적태도는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예측할수 없고 위태한 상황으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남반부에 초대형전략핵잠수함이 40여년만에 다시 들어왔으며 핵전략폭격기가 사상최초로 착륙하였는가 하면 초대형핵동력항공모함타격집단을 빼없이 들이미는 등 각종 미국핵전략수단들의 련속적인 조선반도지역투입으로 남조선이 미국의 전방군사기지, 핵병기창으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여기에 각종 규모의 합동군사연습들까지 《력대 최대》, 《사상최고》의 기록을 세우며 온 한해동안 끊임새없이 확대강행된것입니다.

올해에 미군부깡패들이 일본, 남조선놈들과 벌려놓은 합동군사연습회수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어난 사실을 통해서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대결을 기어코 목적하고 그 준비에 더욱 발악적으로 몰두하고있음을 명백히 알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미국놈들은 피뢰들을 워싱턴에 끌어들여 제2차 《핵협의그루빠》모의판을 벌려놓고 다음해 중반기까지 《핵전략계획 및 운용에 관한 지침》과 《확장억제체제》를 구축하며 8월에 들어가 대규모합동군사연습기간에 핵작전연습을 시행한다는것을 세계면전에 공개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또다시 핵동력잠수함을 조선반도에 출현시키는것으로써 이해가 저물어가는 마감까지 도발을 걸어왔습니다.

현실은 미국이 고질적으로 람발하고있는 반공화국적대행위들이 단순히 수사적위협이나 파시성목적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군사적행동으로 이어져 쌍방무력간충돌을 유발시킬수 있는 범행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에서는 윤석열피뢰정권이 들어앉은이래 줄곧 악화일로로 달음쳐온 북남관계가 최근에 와서 더 한껏 추악해진 역도의 반공화국대결망동



으로 하여 불신과 적대를 덧쌓고 형식상으로나마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놀던 9.19북남 군사분야합의의 파기라는 결과까지 몰아온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주목할것은 윤석열피뢰패당이 불법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위한 다국적전쟁기구로 확대하여 우리와의 《힘의 균형》을 이루고 끝까지 대결해보려고 자멸적인 시도를 하고있는것이다.

최근에 피뢰군부의 우두머리들이 극단적인 호전광들로 편이어 교체되고있는 가운데 군사분계선지역에서 적들의 도발적망동들이 보다 우심해지고 전반적인 피뢰군무력이 재편성 및 증강되고있는 사실 등 날로 표면화되고있는 급진적인 군사적움직임들도 명백히 불순한 침략전쟁기도의 발로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미국과 그 특등주구들의 대결본색은 추악한 근본에 있어서 조금도 개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로골화되고 보다 악랄하게 변이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반도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시기각각으로 격화시키며 적대세력들이 감행하고있는 대결적인 군사행위들을 면밀히 주목해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있습니다.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적들의 발악이 우심해질수록 그 어떤 형태의 도발과 행동도 일거에 억제할수 있는 압도적인 전쟁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각일각 첨예하게 변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전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며 항상 압도적인 자세에서 대응하면서 국가의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더욱 빈틈없이 갖추어야 할것이

며 만일의 경우 발생할수 있는 핵위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결론에서는 군수공업부문이 국방공업의 자립적토대강화와 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확충시켜 우리당 국방발전전략의 성공적실행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핵무기부문에서 핵무기생산을 지속적으로 늘일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해나가며 2024년도 핵무기생산계획수행을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미싸일개발 및 생산부문의 중점목표들과 전투적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우주개발부문에서 2023년에 첫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올려 운용하고있는 경험에 기초하여 2024년에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올릴데 대한 과업이 천명되였으며 우주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결론은 선박공업부문에서 제2차 함선공업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하며 국방력발전 5대 중점목표수행에서 미진된 과업을 빠른 기간안에 집행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제시하였으며 무인항공공업부문과 탐지전자전부문에서 현대전의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무장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수단들을 개발생산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가방위의 일익을 담당한 민방위무력부문에서 적들의 그 어떤 전투행동수법에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게 훈련내용과 방식을 부단히 혁신하여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작전지휘수준과 대원들의 전투행동능력을 더욱 높이는 등 싸움준비를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3년의 국제정치지형과 력량관계에서 일어난 거대한 지정학적변화와 현

국제정세의 기본특징, 조선반도지역의 대외적환경을 심도있게 분석하시고 대외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대적사업에서 단호한 정책전환을 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변화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를 써나가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나라의 대외령역을 보다 확대강화하며 변천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 우리 국가의 지리전략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국제적규모에서 반제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갈데 대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발악적인 핵전쟁위협소동에 대처하여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절대불변의 대적대응의지를 재천명하고 철저한 전쟁억제력의 압도적행사로써 적들에게 불가극복의 안보위기와 공포를 들씌워놓았습니다.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대적투쟁원칙이고 방식입니다.

결론에서는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데 대한 로선이 제시되였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남조선것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통제불능의 위기상황이 항시적으로 지속되고있다.

방대한 쌍방무력이 대치되어있는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그 어떤 사소한 우발적요인에 의해서도 물리적격돌이 발생하고 그것이 확산될수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이 비정상적인 사태는 력대 괴뢰정권들의 정책 연장선에서 볼 때 결코 갑작변이와 같은 우연적 현상이 아니며 북남관계사의 필연적귀결이다.

10년도 아니고 반세기를 훨씬 넘는 장구한 세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 방침들은 언제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것으로 하여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찬동과 세계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나 그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으며 북남관계는 접촉과 중단, 대화와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력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정권이 10여차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는것이 그 명백한 산증거이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령토이고 국민이라고 꺼리낌없이 공언해내고있으며 실지 대한민국 헌법이라는데는 《대한민국의 령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

기되어있습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표현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출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이라는것은 정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사회전반이 양키문화에 혼탁되었으며 국방과 안보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반신불수의 기형체, 식민지속국에 불과합니다.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려든다면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주저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면서 대적, 대외사업부문에서 적들의 무모한 북침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수 있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추어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있게 강구해나갈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당의 수백만 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 인민군장병들의 견인불발의 억센 투지와 노력에 의하여 2024년에도 당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조국청사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변혁이 또다시 창조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모두 승리에 대한 자신심과 무한한 열정을 가지고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위업, 사회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계속혁신, 련속도약의 지침으로 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인 결론에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와 열렬한 박수로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용의주도하고 파단성있는 혁명실천으로 우리식의 발전전략을 확실하게 관철해나갈수 있는 새년도의 명료한 전진방향과 투쟁방침들이 천명된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문헌들은 우리 혁명을 줄기찬 고조제로 강력히 인도하고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는데서 불멸의 전투적기치로 된다.

전원회의는 둘째 의정 《학생소년들을 위한 사회주의적시책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일데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빠짐없이 공급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그 실행을 년차별로 힘있게 추진하여온 정형을 소급하시면서 2023년도 교복, 가방, 신발생산 및 공급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당과 국가가 학생들의 필수용품을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정책,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재삼 강조하시면서 경공업성을 비롯한 해당 기관들과 각급 당 및 정권기관들, 각지의 교복생산단위들이 새년도에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학생 교복과 가방, 신발생산과 공급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실행방도들

을 제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 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사업이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은 곧 사회주의제도의 상징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영상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진정한 혁명가의 본령, 신성한 의무를 지켜 우리 당이 천만자루, 억만자루의 품을 아낌없이 들어가는 중차대한 혁명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셋째 의정으로 《당중앙검사위원회 2023년도 사업정형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검사위원회의 2023년도 사업정형을 심의하고 우리당 규률건설로선집행과 당사업과 당활동을 재정물질적으로 담보하는데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전원회의는 넷째 의정토의에서 국가예산심의조를 구성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예산안을 검토, 심의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는 다섯째 의정으로 《현시기 당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를 토의하고 해당 결정서를 일치가결하였다.

전원회의는 여섯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하신 강령적인 결론의 사상과 정신에 립각하여 새년도 투쟁과업의 철저하고도 정확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를 2일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분과별로 연구 및 협의회를 지도하였다.

연구 및 협의회들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2023년의 투쟁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진취적으로 연구토의되었으며 이 과정에 혁신적이며 건설적인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절대비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서

첫째 의정 :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4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다섯째 의정 : 현시기 당의 기능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12 (2023) 년 12월 3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8차 정치국
회의가 12월 30일에 소집되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분과별 연구 및 협의회
들에서 종합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결정서초안
을 수정보충하여 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정
하였다.

또한 국가에 산심의조가 2023년도 국가에 산집
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에 산안을 심의한 정형을
검토하고 전원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경제발전과 인민생
활향상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12개 중요고
지를 새년도에도 계속 내세우고 힘을 넣는것이
2023년의 성과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경제전반
의 장성추이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이라는 견
해에 기초하여 중요고지목표들을 전원회의에 제
기하기로 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내각총리 김덕훈동지가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회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전원회의는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4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전원회의는 2023년도 국가에 산집행정형과
2024년도 국가에 산안을 최종심의하고 최고인민
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 제출할것을 승인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12월전원
회의가 혁명의 요구와 주객관적형세에 정확히 부
응하면서도 보다 신중한 태도에서 2024년의
투쟁방향을 결심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함으
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기가 확고한
지향성을 가지게 하고 혁명의 줄기찬 양양으로
더 큰 성과들을 쟁취할수 있는 위력한 투쟁의 무
기를 마련하였다고 확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목표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
게 싸워나가자는것이 이번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자기 힘, 자기
위업에 대한 자신심에 넘쳐 위대한 인민과 함께
백배의 용기와 기세찬 분투로 미증유의 값비싼

승리와 성과를 쟁취한 2023년의 영광을 2024년
에로 더 빛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당의 당조직들과 모든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
여 국가와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
를 충실히 수행해나갈 때 중첩되는 시련과 난관
은 격파되고 웅대한 리상과 목표실현으로 힘차
게 나아가는 우리의 위업은 더욱 촉진될것이라
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위업에 언제나 충직할것을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엄숙히 선서하시면서
2024년의 새로운 투쟁을 앞둔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반드시 과감한 실천으로, 자랑찬
결실로 이어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23년 12월전원회의
는 웅대한 포부와 리상을 안고 용진하는 조선
혁명의 불패성을 만방에 떨치며 우리당 투쟁강
령의 성공적실행을 힘있게 견인해나갈 전체 참
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비동원 열의속에 자
기의 력사적이고 책임적인 토의사업을 성과적으
로 마치고였다.

5개년계획완수의 확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한 투쟁의 출발선에 나선 당중앙지도기관 성
원들은 위대한 우리당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충
직하게 받들어 제8기기간안에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발전국면을 공고히 하고 상승시켜
나가는데 보다 유리한 토대와 환경을 마련함으
로써 당과 인민이 부여한 책임적인 사명을 다해
갈 굳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위대한 승리의 해 2023년과 더불어 빛날 조
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는 시
련과 기적을 통하여 검증된 우리 사상, 우리 위
업의 진리성과 양양한 전도에 대한 신념과 락관
을 백배해주고 그 무엇으로써도 거스를수 없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위세를 힘있게 과시한 의의
깊은 정치사변으로 우리 당력사에 길이 아로새
겨질것이다.

* * *



공예 《용맹한 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99(2010)년 10월



바다코끼리상아공예 《조선의 기상》
로씨야 연해변강고려인통일련합회 위원장 박평원
주체108(2019)년 5월



공예 《척척척 선군조선의 발걸음》
제미동포인터넷신문 《민족통신》대표단
주체102(2013)년 9월



금도금공예 《비약의 룡마》
재중동포 김옥화
주체103(2014)년 1월



옥돌공예 《모란꽃과 새》, 《정각과 장수할아버지》, 《룡》
재중동포 김정옥가족 주체106(2017)년 1월



활성탄공예 《국색천향》
재중항일혁명투사 김순옥가족
주체102(2013)년 7월



도자공예 《여일중천》
재중동포 김호운
주체106(2017)년 1월



경골어류화석
세계평화련합 사무총장 박상권
주체101(2012)년 4월

위민천신의 나날에

경제실무적사업이 아니다

주체104(2015)년 1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겨울의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류원신발공장을 찾으시였다.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신발생산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신 그이께서는 이날 새 제품개발정형도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질 좋은 인민소비품을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우리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중요한 문제이라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생산을 정상화하며 제품의 질을 부단히 높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생산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인민들이 실지 반기는 신발을 생산하여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평가기준

주체104(2015)년 11월 어느날 평양어린이 식료품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제품건본실에 들리시였을 때였다.

식료품건본들을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동행한 일군에게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를 실현해야 겠다고 하시며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분석체계까지 세워놓았으니 제품의 영양학적, 위생학적요구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에서 제품을 맛있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을 수첩에 적어나가던 공장의 일군은 새로운 목표라는 글자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과연

무엇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목표를 정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앞섰던것이다.

일군의 이러한 속마음을 헤아려보신듯 그이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였다.

갓난아이들도 말은 못하지만 맛은 안다. 같은 우유가루라도 아이들이 이 공장의것보다 다른 나라의것을 잘 먹으면 이 공장의것은 맛이 없다는것이다. ...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질에 대한 평가기준은 아이들이 즐겨 찾는가 찾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그이께서 밝혀주신 평가기준에 따라 그후 공장에서는 보다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나갈 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7(2018)년 12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였다.

이날 공장의 제품진렬실에서 너자털구두를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하시면서 남의것에 의존하는 공업은 남이 주지 않으면 망하는 공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자력자강의 길만이 살길이라고, 우리는 남이 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그러자면 자립성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자기 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해낼수 있다는것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며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 힘으로 기어이 자기의것이라고 당당히 자부할수 있는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이루어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 * *

위대한 변혁의 2023년

자랑찬 승리와 사변적인 성과들로 주체112(2023)년을 장식한 조국땅위에 주체113(2024)년의 새해가 밝아왔다.

새로운 신심과 락관에 넘쳐 새해를 맞는 이 시각 조국인민들은 시련과 난관속에서 일심단결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지나온 한해를 감회깊이 돌아켜보고있다.

비약의 진로를 명시한 실천방략

지난해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 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한 뜻깊은 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11(2022)년 1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주체112(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 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 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는것을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의 지배적고지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에서 농업생산에서 두

렷한 변화와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농업발전방략을 천명하시였다. 전원회의를 계기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2대 분야인 농업을 가까운 몇해 안에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기 위한 보다 확실한 방안들을 책정하고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촉진시킬수 있는 전환점이 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련되었다.

이어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전진목표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따라 국가의 리익과 안전환경을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국면을 새롭게 상승시키기 위한 지난해의 주요정책집행정형을 중간총화하고

하반년도의 진군로정에서 반드시 대책하고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정책적문제들을 토의결정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현 단계의 투쟁강령실현에서 당과 공화국정부가 추진시켜야 할 과업들에

대해 밝혀주시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주요회의들에서는 그 어떤 요행수나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자체의 힘으로 걸음걸음 부딪치는 도전과 난국을 결연히 타개하고 우리의 구상과 결심대로, 우리가 정한 시간표대로 새시대로의 진군을 가속화해나갈수 있게 한 비약의 진로를 명시하였다.

창건 75돏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을 비롯한 경축행사들은 조선혁명의 명맥이 어떻게 이어져왔으며 공화국의 본태가 어떻게 보존되고 국력이 어떻게 장성강화되어왔는가를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돏을 맞으며 9월 9일 밤 만수대의사당앞에서 진행된 경축대공연은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전후 폐허의 재더미

우에서도 용감히 솟구쳐 자주, 자립, 자위로 굳건한 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조국의 자랑찬 역사를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공연은 공화국의 역사와 불멸의 영광을 위대한 일심단결, 일편단심의 위력으로 무궁토록 빛내어나갈 인민들의 신념을 구가하였다.

값비싼 승리와 사변적인 성과들로 주체112(2023)년을

마감하는 긍지스러운 시점에서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가정과 사회앞에 지닌 어머니의 본분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시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대가정은 더욱 굳건해지고 조국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는 세세년년 끝없이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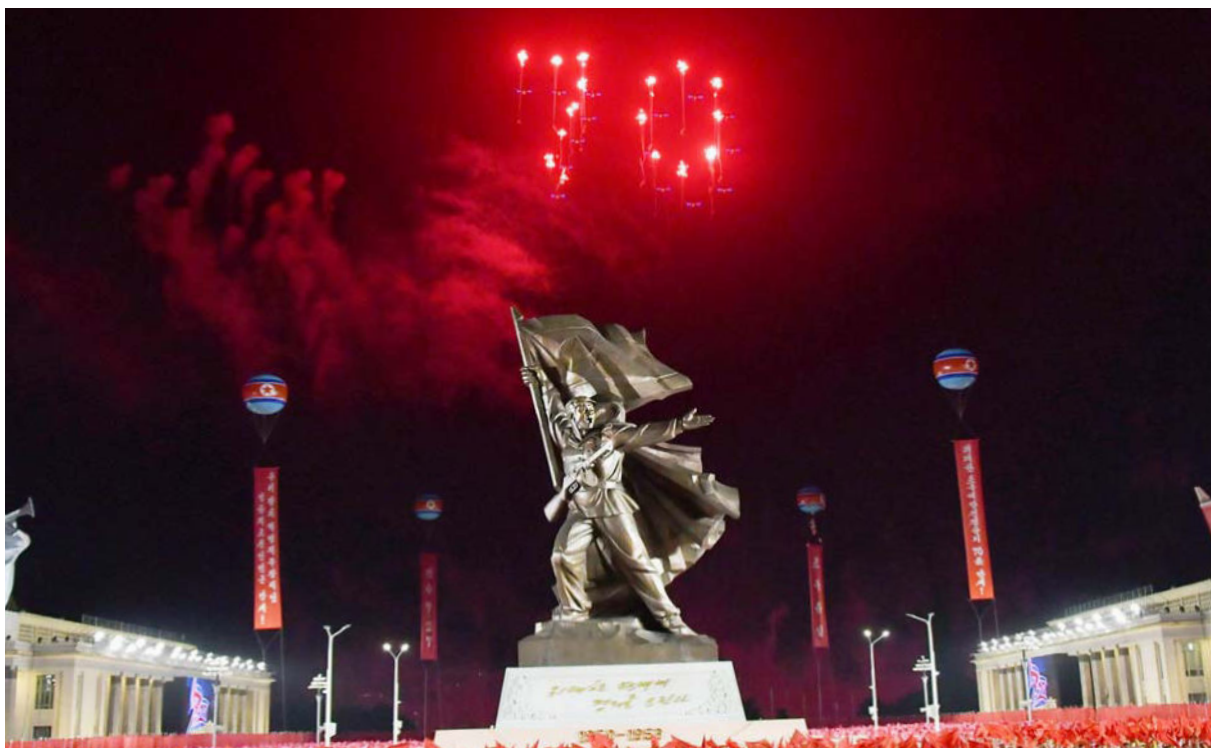
조국의 국위를 과시한 정치행사들

지난해에 진행된 여러 차례의 열병식과 경축행사들은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과시하고

세계를 경탄시켰다.

조선인민군창건 75돏경축 열병식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

리 70돏경축 열병식은 승리전통의 계승의지를 선언한 열병식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돏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시대의 주류로 승화된 애국운동

지난해는 우리 혁명의 격동적인 년대들에 발휘되었던 혁명적인 대중운동,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의 고귀한 전통이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한 한해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할데 대한 전인민적애국운동중시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 탄부들이 지퍼울린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타번지였다. 그들은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지난 시기보다 훨씬 높아진 인민경제계획을 매월 넘쳐 수행하면서도 상반기간 수천t의 석탄을 증산하였다.

조국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다시한번 도약의 힘찬 발걸음을 내짚는 시기에 어느 부문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있는 탄부들이 누구보다 먼저 대중적인 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을 지핀 사실은 전체 인민을 격동시키였으며 온 나라에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

의 열풍이 일게 하였다.

평남탄전에서 타오른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의 불길은 전국각지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로 대대적으로 파급, 확산되었으며 경제발전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이 애로와 난관을 완강히 극복하며 높아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앞장에서 전진하도록 하였다.

지난해는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곳으로 탄원하는 열풍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애국운동들이 시대의 주류로 승화된 한해였다.

5개년계획완수를 담보하는 창조물들

지난해에 농촌경리의 비약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관개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졌다. 가물피해

지역을 위주로 6만여정보의 관개망을 비롯하여 20만정보의 관개체계를 일신하였고 강령호

담수화공사, 해안방조제연구화공사 등이 완공되며 계획된 관개건설목표들이 성과적으로 달

성되었다. 조국의 대규모자연
흐름식물길건설력사에서 여섯
번째로 되는 황주강등물길공사
가 계속되었다.

지난해 전국의 여러 공장, 기
업소들에서 생산된 각종 수확
기, 탈곡기, 파종기를 비롯한
다량의 농기계들이 들끓는 농장
들에 공급되어 농촌기계화의 동
음을 높이 올리였다.

농기계공업부문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벌
어졌다. 금성트랙토르공장의 로동
계급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공장을 찾으시어 주신 과업을 관
철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
을 힘있게 벌리였다. 그들은 2단
계 개건현대화사업을 적극 내밀고
현대적인 트랙토르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창안제작하기 위한 사업
을 적극 추진하였다.

정주트랙토르부속품 공장이
개건되고 청진트랙토르부속품
공장에서 각종 원동기들을 생산
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금속공업부문에서 팔목할만
한 결실을 보았다. 김책제철련
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자력자
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에너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
로건설과 1만 5 000m³/h 산소
분리기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
였다.

그런가 하면 자철광이 무진
장하게 매장되어있는 서해지구의
은물광산 서해리분광산이 일
떠섬으로써 나라의 금속공업발
전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생산
토대가 마련되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도 자립적
인 탄산소다공업창설에서 관건
적의의를 가지는 12월5일청년
광산 결정망초생산공정이 일떠
섬으로써 화학공업발전의 토
대를 한층 튼튼히 다지였다.
순천화학련합기업소에 영양액
비료공장이 일떠서 온실농장들
에 영양액비료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
였다.

건설부문에서는 인민들이 반
기고 기다리는 건축물들이 시간
을 다투며 일떠서 온 나라가 새
집들이기쁨으로 흥성이였다. 화
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준공된데 이어 추가된 2 000세
대 살림집건설이 끝나고 대평지
구 1 400여세대 살림집건설이
결속되었으며 로동당시대 문명
을 자랑하는 농촌마을들이 사회
주의리상촌으로 련속 일떠섰다.

뿐만아니라 세포군민발전소,
평강군민발전소, 내평3호발전

소가 일떠서 나라의 경제발전
에 이바지하게 될 전력생산토대
들이 구축되었고 은산탐사기계
공장과 룡강석재가공공장, 봉
화대트론섬유생산공장이 건설
되었으며 홍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생산공정 현대화대상공사
가 완공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공사대상이 조업하거나 공장들
이 개건현대화되었다.

지난해에 진행된 경공업제품
전시회 《경공업발전-2023》,
2023년 국제상품전람회, 제
14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
회, 가을철괴복전시회-2023 등
의 전시회들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조국인민들의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계기로 되었다. 전시
회들은 해당 부문의 발전에서
또 하나의 도약대로, 서로 배
워주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
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모
두가 분발해나서게 한 원동력
으로 되었다.



대규모관개체계인 황주강등물길이 완공되었다.

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로수뇌상봉은 조로관계발전
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였다. 공
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가 성대히 진행된 직후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로씨야편방에 대한 공식
친선방문을 진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로씨야의 종합적인 우주발
사기지인 위스토프츠노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편방 대
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쎌동지와 력사적인
상봉과 회담을 하시였으며 뿌쎌대통령이 직접 조직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참관을 그와 함께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로씨야편방에 대한 공
식친선방문은 동지적우의와 전투적단결에 뿌리
를 두고있는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
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
는 계기로 되었다.

지난해 7월에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에 즈음하여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동지를 단장
으로 하는 로씨야편방 군사대표단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
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
표단이, 9월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동지를 단장으
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이 우
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과 11월, 12월 로씨야편방 외무상과 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친선의 사절들이 평양을 방문하
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다방면적인 협조
를 위한 사업들을 토의하였다.

친선사절들의 평양방문은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친선단결
의 력사와 전통이 세기와 더불어 줄기차게 계
승발전되리라는 확신과 우애의 열기로 들끓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국인민의 가슴마다에 탁월한 수령
을 높이 모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이 더욱 역세
게 자리잡았다.

* * *

지난해의 려정을 돌아켜보며 조국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
뜻으로 받들어 올해에도 사회주의건설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 결의에 넘쳐있다.



무궁한 번영을 담보해가시는 희세의 위인

자주적신념과 담대한 배짱, 위대한 애국헌신으로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흠모심이 더욱 뜨겁게 분출되고있다.

네팔공산당(통일된 사회주의) 위원장, 요르단공산당 총비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 조선의 눈부신 전변상과 확고한 전략적지위를 보며 진보적인류는 천하제일위인을 모신 조선의 승리는 영원하다는 확신을 새겨안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숭고한 애국관, 완강한 실천력으로 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김정은**각하를 모신것은 조선인민이 지닌 최대의 행운이며 크나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핀란드 조선협회 서기장과 영국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은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위상을 시대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거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세네갈독립로동당 총비서, 만마기자협회 중앙집행위원은 조선은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당당히 실현하며 국제적판도에서 자주와 정의, 평화수호의 정치흐름을 주도해나가는 진정한 강국이라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어 공화국의 절대적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찬양하였다.

진정한 인민의 나라, 무진막강한 힘을 비축하고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면서 공산당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 중앙위원회 위원장, 벨라루씨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향도 따라 조선인민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였다.

벨라루시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은 세계는 **김정은**동지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인민의 꿈과 리상이 어떻게 현실로 꽃피어나는가를 보고있다

고 하면서 절세위인을 모시어 일심단결로 강하고 자력으로 전진하며 자위로 불패인 주체조선의 상징인 람홍색공화국기는 무궁토록 나뭇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민족사회주의당(로므니아) 최고리사회위원장,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범아프리카운동 우간다전국집행위원회 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무진막강한 군사력앞에서는 그 어떤 침략책동도 무용지물이며 제국주의와는 맞서 싸워야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실증해주었다고 찬양하였다.

노르웨이공산당 외스트폴드주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동지의 령도실력은 조선에서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결정적담보이라고 격찬하였으며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은 절세위인의 령도밑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은 진보적인류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적대세력들에게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루과이공산당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조선은 반제투쟁의 전조선에서 미국과 추종세력의 도발책동을 짓부시며 견결히 싸우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계앞에 어떻게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며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셨다.

인류는 그이의 특출한 령도력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 만세!

본사기자 김지성

농촌진흥의 새시대와 더불어

사람들은 흔히 쌀과 물, 불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한시바빠 해결해야 하는것은 바로 보금자리, 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년간 조국땅 가는 곳마다 농촌살림집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국가건설감독성의 한사람으로서 나는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를 펼쳐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해가는 과정에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누구보다 뜨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인민들이 선차적으로 관심하고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직접 체부로 느끼게 하는 살림집건설, 사회주의문명이 꽃피는 현대적인 농촌을 일떠세우기 위한 이 사업은 일대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수도건설의 전성기를 계속 이어나가며 지방이 변하는 시대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20~30년을 기한부로 온 나라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새로운 건설혁명을 일으키자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이라고 하셨습니다.

중앙과 도, 시, 군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건설력량이 조직되었으며 모든 시, 군들에 많은 량의 세멘트가 해마다 정상적으로 보장되고있습니다.

최근년간 농촌살림집건설을 본격적으로 다그쳐나가는 과정에 로력보장사업, 기술장비를 갖추는 사업에서도 일련의 경험이 축적되었습니다.

당의 사랑과 은덕이 농업근로자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새 살림집에서 살게 될 그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설물의 질이 최고의 높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안의 감독일군들은 모든 농촌살림집들이 형성안의 요구대로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 현지에서 나타나는 결함과 원인을 빠짐없이 찾아 제때에 대책해나가고있습니다.

이렇게 건설된 농촌살림집들이 지난해에는 그전해보다 2배나 됩니다.

지난해 평안남도 개천시 보부농장의 새 농촌마을에 새집들이 하는 날 한 농장원녀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살게 될 이집이 건설될 때 모래 한삽 떠보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논밭에서 일할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살림집들을 보면서 성

수가 나서 농사일을 다그쳤습니다. 례년에 없이 분배몹은 훨씬 많아지고 덩실한 새집을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아안으니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어가는 나날 새 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우리 농촌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모되어가고있습니다.

달라지고있는것이 어찌 농촌뿐이라 하겠습니까.

건설이 전례없는 규모로 추진되는 속에 평양이 사회주의조선의 수도답게 변모되고있으며 지방과 농촌이 자기의 면모를 일신해가고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민이 더 잘살게 될 아름다운 래일은 하루하루 눈앞에 다가오고있습니다.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당의 숙원이 현실로 꽃피나고 있는 땅이 바로 우리 사는 사회주의조국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회, 고마운 어머니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나가려는것이 저뿐만이 아닌 우리 인민모두의 마음입니다.

국가건설감독성 국장 김주호

구국군과 함께

(전호에서 계속)

나는 류하에 머무를 때 리홍광, 리동광과의 련계를 위하여 반석지방에 련락원을 파견하였다. 우리가 남만원정을 마치고 귀로에 오르던 그때 그 두사람도 유격활동에 몰두하고있었다. 그들이 9.18사변후 보민회를 비롯한 친일단체의 주구배들과 싸우기 위해 조직했던 무장적위대(일명 타구대, 개잡이대라는 뜻)는 1932년 9월에 이르러 반석로농의용군으로 성립되었다. 이 의용군은 모두 탈량투쟁과 주구숙청, 무기 탈취, 반일봉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통하여 단련되고 검열된 조선청년들로 구성되어있었다. 1932년 여름부터 리홍광, 리동광은 항일유격구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그들은 주구숙청투쟁에서 특출한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화제거리를 남기고있었다.

내가 그들을 만나려고 한것은 남만지방의 주인들이기때문에 단순히 의례방문이나 하고 인사나 나누자는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자는데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과 함께 투쟁경험을 나누고싶었다.

다음으로 내가 관심을 둔것은 그들이 조선혁명의 전도를 두고 어떤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당면과업에 대한 나의 견해와 립장도 발표하고 그에 대한 두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싶었다.

제일 중요한것은 만주각지에서 분산적으로 무장투쟁을 개시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지역호상

간의 련계는 어떻게 보장하고 립점과의 보조는 어떻게 맞추며 활동에서의 협조, 협력, 협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현하겠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것이였다. 나는 북만의 김책, 최용건, 리학만, 리기동, 허형식과도 그런 의견을 나누고싶었다. 남만과 북만은 우리의 립점이자 의측이라고 할수 있었다. 립점과의 협동을 어떻게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무장투쟁의 전반적발전에 심대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고리이고 공간이다.

반석에 갔던 련락원은 우리가 해룡을 떠나 몽강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야 부대로 돌아와 리홍광과 리동광이 지방공작을 나가고 없기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그곳 지하조직에 나의 편지만 남기였다는것을 보고하였다.

나는 리홍광, 리동광과의 상봉을 뒤로 미루고 몽강에서 본격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었다. 몽강에서 우리가 세운 활동의 총적목표는 무장을 해결하는것과 대렬을 확대하는것이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정치공작과 함께 군사의교활동이 필요하였다.

몽강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이루는데서 몇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있었다. 몽강의 관리들 가운데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의 나의 동창생들이 많았다. 계렬을 따지면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고 어떤 정치운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고 고분고분 공부만 해오던 샌님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몽강의 실권을 쥐고있었다. 그들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국민당헌공서에서 일하고있다가 일본이 만주를 침

략하자 자위군이라는데 들어가서 큼직한 벼슬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있었다.

몽강에는 통화지방에 본부를 두고있는 당취오 자위군 총사령부의 대표도 와있었다. 동창생들을 내세워 그 대표와 교섭을 잘하면 무장을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이런 실태를 파악한 우리는 몽강에 눌러앉아 자위군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부대의 지휘관들은 자위군과의 사업에 별로 큰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자위군과 접촉하는것을 모험이라고 생각하는 지휘관들이 태반이였다. 같은 조선사람인 량세봉과도 뜻이 맞지 않아 담판이 결렬되였는데 자위군과 사업하여 무기를 얻어낸다는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일이다, 항차 자위군은 지금 와해상태에 있지 않는가, 어떤 부대에는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 공산주의자들을 소탕할 모의를 한단데 그런 함정에 대장자신이 들어가는것을 우리로서는 찬성할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나는 자위군내부에 일본지도관이 틀고앉아있는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놈들에게 공산주의자들을 판별하는 축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들의 눈을 속이고 자위군지휘부에 뚫고 들어가 그 상층을 설복할수 있는 담력이 있다, 자위군이 와해상태에 있는것은 오히려 우리가 공작목적을 손쉽게 달성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될수도 있다, 그들은 왜놈들이나 토비들에게 총을 넘겨주거나 내버리는것보다 항일을 하는 우리에게 양도하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것이다, 것처럼 완고한 우사령과도 뜻이 통하

여 합작을 성사시켰는데 자위군이라고 해서 왜 굽혀내지 못하겠는가 하고 하였다.

그러자 지휘관들은 대장동무가 우사령과의 담판에 성공한것은 천번중 한번이나 있을가말가한 우연이다, 만일 그 부대에 류본조선생이 없었더라면 담판은 성공하지 못했을것이라고 하면서 자위군부대에 찾아가는것은 좀더 심사숙고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지휘관들에게 해보지도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서 콩이야팍이야 하며 시야비야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기질이 아니다, 유격대를 합법화하는데서 우리가 류본조선생의 덕을 크게 본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공을 순전한 우연으로만 보는것은 비과학적인 해석이다, 우리가 구국군과의 관계를 풀려고 주동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더라면 류본조선생도 우리를 도와나서지 못했을것이다, 문제는 배심을 가지고 어떻게 주동적으로 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루루이 지휘관들을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련락병을 한명 데리고 자위군의 지휘부로 찾아갔다.

자위군의 병영에는 사병들이 짝 차있었고 정문으로는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우마가 그칠새없이 드나들었다.

정문에서 보초병이 우리를 멈춰세우고 산동지방말씨로 《무슨 사람들인가?》 하고 물었다. 보초의 검실검실한 눈은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자위군과는 판판 다른 우리의 유격대복장과 모자의 오각별을 유심히 더듬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하여

중기계생산에 박차를

- 라원기계종합기업소에서 -

건설부문과 채취공업부문에 쓰이는 여러가지 대형기계와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소이다.
평안북도 신의주시에 자리잡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라원기계종합기업소에서 중기계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의 4번째 해인 올해에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요구되는 각종 중기계들을 보다 훌륭하게 만들어 더 많이 보내줄 일념으로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노동자들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나섰다.

기업소의 일군들은 생산계획

이 높아진데 맞게 중심고리를 찾아쥐고 거기에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시키는것과 함께 공정간련계를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기술집단에서는 제품들에 대한 설계와 공정표작성과제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현장들에 보내주었다.

생산현장마다에서는 대중의 창조적열의가 분출되는 속에 중기계생산이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유압기구, 정밀, 일반기계

직장들에서는 설비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부속품의 정밀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창의 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일적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주강, 단조직장 등에서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교대별 사회주의중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소재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할 때 대형조기, 청년직장에서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비조립속도를 높여나



가고있다.

그 어느 직장에서도나 생산적
양양이 일어나는 속에 능률높
은 자동차기중기, 유압식만능삽
차, 각종 굴착기 등이련일 생
산되어 사회주의건설장으로 보
내지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며

조선로동당이 부르는 곳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청춘을 빛내여가는 조국의 청년들이다.

돌이켜보면 당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하며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고 승리만을 펼쳐가는것은 조국청년들의 전통이고 기질이다.

시대마다 청년들이 떠올린 건축물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거기에는 하나로 판통된것있다.

그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 청춘의 삶이 빛나고 청춘의 위훈이 그대로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정신으로 빛을 뿌린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청년들에게 주시였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계승하여 강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언제인가 그이께서는 백두산영웅청년1호발전소 언저리의 량옆에 있는 《백두청춘》, 《청년강국》, 《청년중시사상 만세!》라는 표어들과 구호들을 무심히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이라고, 여기에서도 청년강국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청년강국을 떠나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청년강국의 력사적지위를 정식화하신 그이께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청년중시를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장에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주체101(2012)년 청년절을 맞으며 평양에서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축하문을 보내주시였으며 돌아오시는 길로 청년절경축대회 참가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기념사진도 찍으시였다.

그리고 청년동맹은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 당 다음가는 정치조직이라고, 청년사업은 당사업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며 끝없는 믿음을 안겨주시였고 청년들이 있는 곳은 다 가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머나먼 북방의 발전소건설장에만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였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은 청년들을 기적과 위훈을 낳는 시대의 영웅들로, 참다운 애국자들로 역세게 키우는 자양분으로 되었다.

수많은 청년들이 정든 고향집과 도시를 멀리 떠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전야, 외진 산골과 섬마을의 학교로 자원해가고있으며 남을 위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는 미풍선구자들이 날을 따라 더욱 늘어나고있는것이 조국의 현실이다.

오늘 청년들은 수도의 5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도 애국청년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며 로력적위훈을 세워가고있다.

어느한 나라의 인터넷홈페이지에는 《강국중의 진짜강국은 주체의 청년강국 조선이다.》라는 글이 실린적이 있다.

주체의 청년강국, 이 자랑찬 현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청년중시사상과 청년운동강화발전에 바쳐오신 헌신의 결과인것이다.

본사기자 변진혁



방문기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아서

얼마전 우리는 만경대구역 광복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찾았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78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흘러 넘치였다.

참관자들과 함께 사적관 총서

홀에 들어선 우리는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청년운동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영상사진문헌들과 자료들이 전시된 3층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계단을 오르는 우리의 눈앞에는 벽면에 게시해놓은 가사

《발걸음》의 구절구절이 의미 깊게 안겨왔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와 사상도 뜻도 발걸음도 같이할 천만 인민의 억척불변의 맹세가 담겨진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보며 호실에 들어선 참관자들에게 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청년들이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힘차게 투쟁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이어지던 참관자들의 걸음은 뜻깊은 글밭앞에서 멈춰섰다.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할 래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김정은
2012 1. 26》

길지 않은 글밭이었다. 그러나 청년들을 굳게 믿고 내



세워주시며 청춘의 역센 나래를 활짝 펼쳐주시는 절세위인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의 세계가 산악처럼 안겨와 발걸음을 쉬이 뻗수 없었다.

승업한 걱정과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참관은 청년들이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치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보여주는 호실로 이어졌다.

강사는 당의 뜻을 받들어 정든 고향을 멀리 떠나 거창한 대상건설을 해제긴 청년들의 불굴의 투쟁과 함께 그들이 발휘한 높은 정신세계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하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전세대 청년들의 뒤를 이어 영웅청년 신화를 창조한 백두청춘들의 희열에 넘친 모습들이 그대로 어려오는데 있었다.

감격도새로운 주체104(2015)년 10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창건 70돐을 눈앞에 둔 시기에 몸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찾아오신 그 은정도 고마운데 뜻깊은 연설을 하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으며 군민청년대합창공연도 보아 주실 때 청년건설자들은 행복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가슴적시였다.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며 그이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었던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문헌과 그들의 위훈을 소

개한 《청년전위》신문기사들, 여러 전시물들과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의 전경을 보여주는 대형반경화실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다음호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당시) 제9차대회에 대한 해설을 들은 참관자들은 수도 평양을 멀리 떠나 삼지연시에 진출하여 새집에 입사한 세쌍둥이자매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신 그이의 영상사진 문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직은 부모들도 와보지 못한 새집에 찾아오시여 그들의 소행을 그리도 대견하게 여기시며 온 나라가 보란듯이 내세워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끓어 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참관자들을 교대자, 후비대의 글밭이 부각되어있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발이 거연히 서있는 전시면앞으로 이끈 강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주체110(2021)년 4월에 진행된 청년동맹 제10차대회에 력사적서한을 보내주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도 찍어 주신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각도 청춘의 자서전을 값높이 새겨갈 열의 안고 수도시민증을 파견장으로 바꾸어 탄전으로, 농장별로 탄원하고 도시를 떠나 대건설장으로, 섬마을로 주저없이 진출하는 수많은 애국청년들의 미더운 모습들을 그려보았다.

진정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품이야말로 청년들을 조선로동당의 후비대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척후대로 억세게 키우는 위대한 품이라는것을 참관자들은 더욱 굳게 확신하

였다. 참관자들은 그이께서 펼치는 청년중시정책의 빛발아래 더욱 활력있고 희망에 넘쳐 전진하는 주체조국의 눈부신 래

일을 확신하며 청년운동사적관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러해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청년들의 애국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한 청년들의 열의가 더욱 고조되고있다.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조국인민은 어디서나 애국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특히 청년들이 애국은 그 어떤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고 실천이라는 자각을 안고 어머니조국의 큰 힘이 되고 자라나기 위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솔선 탄원하였다.

지난해에만도 전국각지의 수많은 청년들이 수도의 대건설장들을 비롯하여 어렵고 힘든 곳으로 앞을 다투어 달

려나갔다.

당이 부르는 곳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펼쳐갈 애국열에 충만한 청년들의 탄원열기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고조되었다.

웅대한 수도건설구상을 펼치고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 보람차고 영예로운 임무를 청년들에게 맡겨준 당의 믿음에 충성과 애국의 실천으로 화답해나서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장에 탄원하였다.

지난해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이 착공된 후 7월까지만도 1만여명의 청년들이 더 달려나가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

치였다.

당과 조국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혁명하기 좋아하는 조선청년다운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수도 평양의 북쪽관문에 세상을 놀래울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물을 보란듯이 떠올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은 청년들의 가슴마다에 식을줄 모르는 열정을 안겨주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요부문들에도 앞장서 탄원하였다.

평안북도의 많은 청년들이 농장과 광산, 군건설려단을 비롯

한 어렵고 힘든 곳에 삶의 좌표를 정하였다.

평안남도의 청년들도 발전소 등에 탄원하였으며 순천시, 개천시, 덕천시, 북창군의 청년들도 사회주의불빛을 지켜가는 길에서 조국이 기억하는 청년전위의 삶을 빛내여갈 맹세를 안고 석탄공업부문에 진출하였다.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에 탄원열기를 고조시켰던 남포시에서 많은 청년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들로 탄원하였다. 그들속에는 당의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실현을 위해 청춘을 바쳐갈 각오를 안고 구역, 군안의 농장들과 건설려단들에 진출한 청년들도 있고 당중앙전원회의 결정관철로 뚫어버지는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등으로 탄원한 청년들도 있었다.

황주중등학교 졸업생들을 비롯한 황해북도의 수많은 청년들이 도안의 농장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 등으로 진출할 때 황해남도의 수많은 청년들도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에서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기수가 될 맹세를 피력하며 농장과 시, 군건설려단들에 달려나갔다. 자강도와 함경북도의 수많은 청년들도 애국청년의 본분을 다해나갈 비상한 각오안고 인민경제의 주요전구들에 삶의 닳을 내리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려는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최전연지대, 외진 섬마을과 산골의 분교들과 진료소들에 진출한 각지 대학졸업생들속에서도 찾아볼수 있었다.

원산사범대학의 한 졸업생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한생토록 지켜갈 일념안고 삶의 좌표를 그곳에 정하였다.

강원도, 함경남도과 개성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대학졸업생들도 최전연지대와 외진 섬분교, 산골, 농촌학교들에 자원진출하였다.

나서자란 고향과 가슴속에 키워온 희망은 서로 다르지만 청년들은 당의 뜻을 받드는 하나의 꿈과 리상을 안고 청년돌격대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벌리면서 집단적혁신,련대적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었다.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대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돌격대활동을 과감히 벌려 순별, 월별, 분기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할 각오를 안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청년들도 돌격대활동,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벌려 대상설비생산에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경공업부문의 청년들도 한교대더하기운동, 다추운동, 다음교대도와주기운동 등을 힘있게 벌려 수많은 청년들이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고결한 인생관을 체질화한 이렇듯 미더운 애국청년들이 있어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전진속도는 더욱 가속화 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조선중앙통신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기적과 혁신으로 청춘을 빛내이고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해외동포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뜻깊은 주체112(2023)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주체113(2024)년을 맞이한 이 시각 《금수강산》편집부는 동포여러분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그러하지만 2024년의 새해를 맞이하고보니 언제나 《금수강산》잡지와 더불어 숨결을 같이해주신 동포여러분들의 모습이 더욱 감회깊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계를 휩쓸었던 악성비루스의 전파로 4년간이나 여러분들을 만나보지 못한 우리들의 아쉬움이 커서이고 앞으로는 그를 털어버리고 그간 못나눈 정회를 나눌수 있으리라는 마음이 앞서서인듯싶습니다.

아마 동포여러분의 심정도 같으리라 봅니다.

그런 마음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본분을 자각시켜주고 있습니다.

둘어해보면 우리 잡지의 각피마다에는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변함없이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고있는 로세대동포들과 3세, 4세대동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포여러분, 새해에도 《금수강산》편집부는 조국의 거세찬 발걸음에 맞추어 격동적인 화면과 필치로 잡지를 독자들이 기다리는 출판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할것입니다.

조국은 격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있습니다.

지난해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전진의 길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지만 조국인민들은 사회주의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점령을 위한 사업에서 소중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와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를 비롯한 정치행사를 통하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뚜렷이 과시하였습니다.

대외관계도 비상히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동포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난해 9월에 진행하신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전통적인 조로선린협조의 뉴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깊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조국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과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들을 접견하시여 전통적인 친선과 동지적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기였다.

눈에 띄게 변화발전하는 조국의 모습은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래일을 확신하게 하고있으며 이 력사적시대에 사는 겨레의 성원이라면 누구나 조국의 걸음에 발맞추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수많은 동포들이 이미 이 성스러운 길에 나섰으며 오늘도 새세대 동포들이 선대들의 뒤를 이어 부강조국건설에 지혜와 힘을 합쳐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분들이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조국을 위한 일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리라는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동포여러분들이 사업과 활동에서 있었던 가지가지 이야기들과 좋은 글들을 우리 편집부로 보내주어 《금수강산》잡지의 내용을 다양하고 풍만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좌담회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에는 무용문자입력프로그램,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무용작품모의프로그램, 표기교육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참가자들

- 우준민: 문화성 조선자모식무용 표기정보국 과장
- 길호철: 문화성 조선자모식무용 표기정보국 강사
- 장문일: 문화성 조선자모식무용 표기정보국 실장
- 차경일: 문화성 조선자모식무용 표기정보국 연구사
- 연옥: 본사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의 과학화, 정보화에서 특기할 성과로 되는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준민: 어제가 있어 오늘이 있듯이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은 1970년대부터 연구하여온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일찌기 무용예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무용표기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62(1973)년 10월에 무용표기법연구집단을 무어주시였습니다. 전세대 무용표기법연구집단은 그이의 가르치심과 지도를 받으며 주체76(1987)년에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을 완성하였습니다.

길호철: 당시 자모식무용표기법은 세계 많은 나라의 무용가들과 표기전문가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주최로 15개 나라의 무용가들과 무용표기전문가들이 참가한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에 대한 국제발표회와 개별 및 집체강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체81(1992)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국제무용리사회 제10차총회와 그에 이어 진행된 조선자

모식무용표기법에 관한 국제강습과 발표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의 과학성과 통속성이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수십개 나라의 무용전문가들은 새로운 무용표기법으로는 조선무용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민족무용도 다 표기할수 있다는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장문일: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의 우월성은 인간의 운동심리에 제일 가깝게 접근하고 문자화된것으로 하여 정보기술적 활용에 매우 유리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기법이란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기호들과 그것들의 리용규칙 다시말하여 일정한 기호나 그림 등을 리용하여 어떤 뜻을 나타내게 하는 약속된 방법과 형식들을 체계화한것입니다.

무용표기법은 무용을 기록하기 위한 표기법 다시말하여 음악에 맞추어 진행되는 사람의 동작을 기록하기 위한 표기법입니다.

무용표기법이 없었던 지난시기 춤동작은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적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어왔습니다.

차경일: 나는 현시기 무용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무용창조공정의 정보화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그 기초로 되는것이 무용표기정보화라는것을 강조하고싶습니다.

사람-기계의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오늘날 무용표기는 인간의 행동으로 기계적수단들을 조종하기 위한 인공지능연구에도 이바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특성으로부터 무용표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야할 중요한 학문의 하나로 됩니다.

기자: 들을수록 이렇듯 독특하고 우월한 자모식무용표기법을 창제하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뜨겁게 느껴집니다.

우준민: 예.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시작된 우리의 무용표기법연구는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속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용표기의 과학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연구집단은 무용문자와 그 결합방식을 최적화, 최량화하여 표기법의 과학성과 통속성을 더욱 높이였으며 그에 따라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을 개발완성하였습니다.

기자: 《물동》이라는 무용창작지원체계이름이 참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을 더욱 끄는것은 《물동》이 우리의 자모식무용표기법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는 그

것입니다.

길호철: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은 무용창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선자모식무용표기법은 말그대로 조선자모의 결합원리가 적용된 표기법으로써 몸부위의 형태와 방향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문자화하고 그것들을 결합하면서 춤동작을 표기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용문자는 34개이고 결합방식은 3가지이며 여러가지 기호들도 있습니다.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에는 무용문자입력프로그램 《하나들》,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 무용작품모의프로그램 《무지개》, 표기교육지원프로그램 《표기학교》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무용문

자입력프로그램 《하나들》은 컴퓨터조작체계에 무용문자입력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물론 모든 프로그램들에서도 무용문자를 입력할수 있게 해줍니다. 무용보편집프로그램 《백학》은 컴퓨터에 의한 무용보작성과 편집, 인쇄를 지원합니다.

장문일: 나는 프로그램 《하나들》과 《백학》의 연구성과에 토대하여 안무가의 구상을 3차원적으로 미리 모의해보기 위한 무용작품모의프로그램 《무지개》를 개발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의 정보기술이 융합된 이 프로그램은 안무가의 구상을 3차원적으로 보여줄수 있으며 첨단기술이 응축된 춤동작모의기술을 확립함으로써 무용보로 서술된 무용작품을 콤

퓨터상에서 현실감있게 재현할수 있습니다.

차경일: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에는 표기교육지원프로그램 《표기학교》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리용하여 무용문자타자훈련을 진행하면 표기관련프로그램들을 쉽게 다룰수 있습니다.

무용창작지원체계 《물동》은 지난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집단은 인간의 운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구축하고 관리하면서 여러 분야에 확대도입해나가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있습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해주어 감사합니다.

* * *

상 식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 《조보》

우리 선조들은 16세기초에 《조보》라는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중종실록》 38권에는 신문 《조보》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밝히고있다.

《조보》는 조정에서 내는 일간신문이었다.

1536년에 이탈리아신문 《베네찌아 가제뜨》가 발간을 시작하였으나 비정기적인 신문이였고 도이쉴란드의 《스트라스부르 렐라티온》과 영국의 《위클리 뉴스》 그리고 프랑스의 《가제뜨》 등 신문들은 17세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간지였다.

유럽의 첫 일간지는 《조보》가 나온지 무려 140년이 지난 후인 1660년에 이르러서야 도이쉴란드에서 나왔다.

근대시기에 우리 나라에 와있던 프랑사람인 꾸랑은 저서 《조선서지》에 《이 신문은 매일 오전에 나오므로 그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의 소식은 물론 당일 아침의 소식도 넣었다.》고 썼다.

력사적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간신문을 발간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 * *



만수대창작사 민예창작단 미술가
공훈예술가 전병진

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고

주체101(2012)년 공훈예술가칭호를 받
던 날 그는 창작수첩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의 꿈, 나의 꿈, 아니 모두
의 꿈을 꽃피워주는 조국. 내 한생 조국
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가는 미술가로 살
겠다.》

전병진은 오늘도 아버지의 당부를 마음
속에 안고 창작에 열중하고있다.

《화가는 평범한 생활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형상으로 꽃피
울줄 알아야 한다.》

만수대창작사 민예창작단 미
술가 공훈예술가 전병진은 창작
의 여가시간이면 아버지가 입버
릇처럼 하던 이 말을 되새기곤
한다.

그의 아버지(전우근)는 일
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

냈다.

미술가가 될 꿈을 안고있었지
만 가정의 어려움으로 하여 아
버지는 미술공부를 할수 없었
다. 아버지는 어린 나이에 우유
배달을 하며 그림도구와 종이를
하나둘 마련하였다. 힘들게 미
술구락부의 소조원이 되었던만
아버지에게 차례지는 배움의 시
간이란 너무도 짧았다.

아버지의 꿈은 주체 49
(1960)년 조국의 품에 안겨서
야 실현될수 있었다. 자기의
희망대로 평양미술대학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치게 된 아버
지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그림
을 그렸다. 매일 속사지에는 눈
으로만 보기에는 너무도 아름
다운 조국의 모습과 사람들의 생
활이 그려지곤 하였다.



가림지도를 하고있는 전병진



습작을 하고있는 전병진



유화 《대흥단의 저녁》

이 과정에 《보통강의 여름》
도 창작되게 되었다.

고상한 색채로 보통강의 풍치
를 잘 형상한 그림은 여러 풍경
화전람회들에서 높은 평가를 받
았으며 국가소장품으로 되었다.

《조선미술박물관에 전시된
아버지의 그림을 볼 때마다 생각
이 많아집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의 부모이기 전에 첫 스승이었고
삶의 거울이었습니다. 제가 미술
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도 아버
지의 영향이 컸습니다.》라고 전
병진은 말하였다.

휴식일이면 우근은 아들을 데
리고 명승지와 공장, 건설장들
을 즐겨 찾곤 하였다. 그 나날
아들 병진은 아버지에게서 생활
의 본질을 파악하고 화폭에 아
름다움을 담은 묘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다.

아들이 그린 그림들은 대학
에서 진행된 전람회들에서 종종
1등을 하곤 하였는데 시상품을
타가지고 집에 들어서는 날이면
아버지는 무척 대견해하였다.

이런 성장의 나날속에 그는
나라의 판록있는 미술창작기관
인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로 일하

게 되었다.

근 30년간의 창작생활과정에
그는 많은 인물주제화, 풍경화
및 정물화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중에서도 유화 《이밤도 지
새시며》를 비롯하여 많은 작품
들이 국가미술전람회들에서 높
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주체99(2010)년에 창
작한 유화 《대흥단의 저녁》
은 고상한 색채미와 독특하면
서도 개성적인 그의 필치가 그
대로 살아나는 작품이다. 황혼
이 깃든 대흥단의 전야와 날이
지는줄도 모르고 흥겹게 일하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눈에 방불히
안겨오는 작품을 보고 전문가들
은 색채가 고상하면서도 필치가
활달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
기하였다. 특히 하늘땅의 색대
조를 대담한 기법으로 처리한것
은 새로운 화법이였다.

작품은 국가소장품으로 선정
되었고 그해 5월 오스트리아의
원에서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술과 건축》이라는 독특한 명
칭을 띠고 진행된 전람회에서
《...유럽의 대가들도 무색케 하



유화 《무용수》

는 높은 수준에 이른 조선의 그
림》이라는 격찬을 받았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박람회, 전시회들에 작품들을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
으며 10여년간 해외에서 미술
교류활동에 참가하여 판록있는
조선의 미술가로서의 명성을 떨
치였다.

글 본사기자 엄향심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자유분방한 필치로 이름남긴 심사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인가 조선 미술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박물관에 전시된 옛 그림들을 돌아보시다가 심사정이 그린 《여름



《여름의 산막》(117×60cm) 종이·담채 심사정

의 산막》을 보시고 당시 우리 나라 농촌의 풍경을 잘 형상하였다고 평가해주시었다.

화면을 보면 뒤에는 산이 있고 록음우거진 산 골짜기를 따라 맑은 물이 감돌아흐르는데 기묘한 바위들이 둘러선 아늑한 숲속에 담장을 두른 대문열 다락우에서 글공부에 여념이 없는 선비가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담장안에서는 한쌍의 백학이 거닐고 담장밖에서는 나무단을 안은 두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며 돌층계를 오르고있다.

깊은 산속의 경치가 얼마나 생동한지 마치 돌돌 흐르는 시내물소리와 청아한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듯하다.

그림에는 아름다운 산천에 대한 화가의 사랑의 감정과 재치있는 묘사능력이 잘 반영되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 《여름의 산막》은 당시 우리 나라 농촌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린 심사정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회화사를 돌이켜보면 뚜렷한 개성으로 우리 민족의 화단에서 독자적면모를 보여준 사람들이 적지 않다. 바로 심사정도 그 대표적인물들중의 한사람이었다.

1707년에 태어난 그는 자를 이숙, 호를 현재라고 불렀는데 문장과 그림으로 이름났던 아버지와 인물을 잘 그린 외할아버지의 영향하에서 배우면서 그림법을 빨리 터득하였다.

그의 이러한 성장과정에 대하여 옛책들에는 《심사정은 어릴 때 벌써 스스로 물체를 형상하여 그릴줄 알았고 모난것, 둥근것을 그렸다. 어릴 때 정선의 제자로 되어 수묵산수화를 배웠는데 옛날사람들의 화법을 연구관찰하여 곧잘 해득하였다.》라고 써여져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50여년간 붓을 놓은 날이 없었으며 육체가 쇠약하여도 그림을 그리었다.

이렇듯 심사정은 그림에 전 생애를 바치었고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다.

심사정은 이처럼 많은 그림들을 그려놓았지만 너무 가난하여 그가 생을 마쳤을 때에는 장례도 치르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여러 사람들로부러 부조돈을 모아 장례준비를 해주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심사정의 성품이 어떠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현재 심사정이 그린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여름의 산막》, 《꽃과 나비》, 《매화를 찾아서》, 《겨울경치》 등 30여점이 전해져오고 있다.

심사정은 섬세한 필치보다도 자유분방한 필치를 좋아하였는데 그의 필치는 그 어떤 틀에 구속되어있지 않으며 묘사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있다.

독특한 개성으로 일관된 그의 작품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도 널리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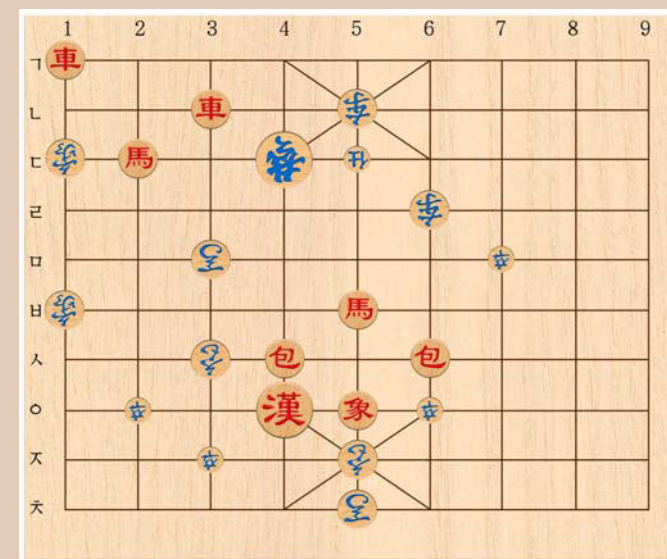
이처럼 심사정은 조화롭고 세련된 필치로써 자기의 독자적인 풍경화의 경지를 이룩해놓은 재능있는 화가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련꽃》(38×30cm) 종이·먹 심사정

장기수풀이 (13)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차는 갈차

량차는 줄차가 아니라 갈차로 되어야 그 위력을 다 발휘할수 있다는 뜻이다. 갈차인 경우에는 통장을 부를수 있는 조건이지만 줄차로써는 통장을 할수 없는것과도 관련되는 말이다.

갈차의 통장공격은 막기 힘들기때문에 《갈차는 장수도 못막는다.》라는 말도 있다.

장기수풀이 (12)에 대한 답

○3차ㄷ3, ㄴ5사ㄷ5, ㄹ2말ㄹ4, ㄹ6줄ㄹ5, ㄷ3차ㄴ3, ㄷ5사ㄴ5, ㄹ4말ㄷ2, ㄴ5사ㄷ4, ㄷ2말ㄴ3, ㄷ4사ㄴ5, ㄴ3차ㄷ3, ㄴ5사ㄷ5, ㄷ1포ㄷ4, ㄷ5사ㄴ5, ㄷ4포ㄴ6, 장훈

처마무늬

처마는 부연, 서까래에 의한 아름다운 곡선미와 구조로 하여 특색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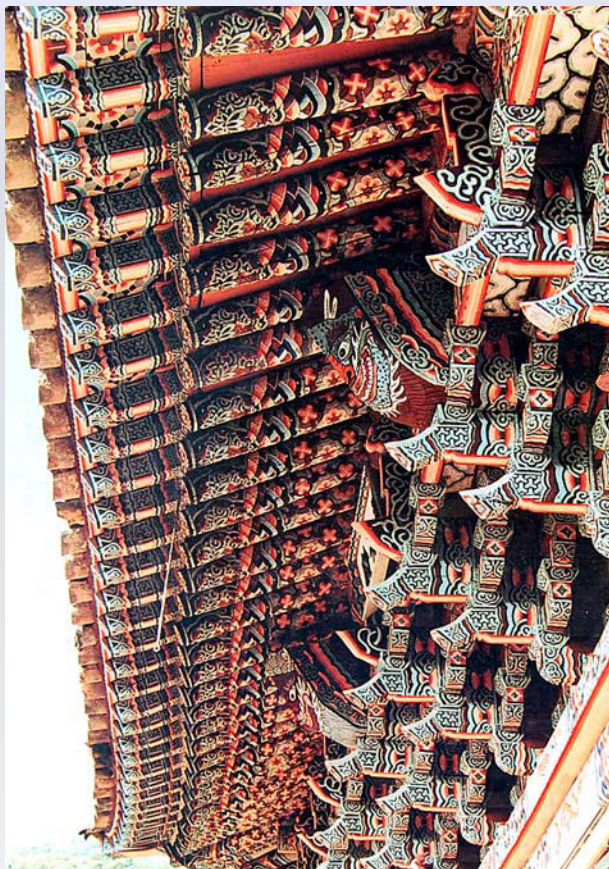
처마를 이루는 매 부재들에는 성격과 기능에 맞게 모루무늬, 따발무늬, 장획선, 비단무늬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여러 무늬들이 반복되면서 펼쳐지는 처마장식은 마치도 금방 날아갈듯 깃을 편 새의 날개처럼 반공중에 떠있는듯이 보이면서 육중한 지붕의 중량감을 잊고 그 아름다움만을 감상하게 한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철



묘향산 보현사 처마



연탄십원사 보광전의 처마



표훈사 명부전 정면처마

화약무기제작과 진포해전

14세기후반기 고려는 가장 간고한 형편에서 왜구와 힘겨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당시 왜구의 침습은 대규모적이었으며 연안뿐 아니라 내륙에까지 침입하여 개경으로 향하는 조운선을 모조리 략탈하는 정도로 험악했다.

왜구의 발길이 미친 모든 고장이 쑥대밭으로 변하였으며 배길은 막히어 개경의 식량창고가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왜구를 육지에서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격멸할 방책을 시급히 강구할것을 요구하였다.

그 방책은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는것이였다. 하지만 조정내의 근시안적인 대신들은 이에 찬동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화약과 화약무기를 창제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왜구를 격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최무선이였다.

왜구의 침습으로 인한 나라의 피해와 백성들의 불행을 목격하면서 자란 최무선은 어떻게 하면 왜구를 격멸소탕할것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바다로 침입하는 왜구를 전멸시키자면 화공을 써서 적선을 몽땅 불살라야 한다. 그러면 다리를 잃은 적들은 다시는 침습하지 못할것이고 물에 상륙한 적들은 독안에 든 쥐의 신세가 되고말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최무선은 먼저 배를 불살라버리는데 쓰일 화약을 얻어내기 위한 염초제조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재간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실험 및 제조기구를 갖추어놓고 긴장한 실험의 나날을 보내고 또 보내었다. 이렇게 하여 1373년 10월 그는 드디어 염초를 만들어냈으며 염초를 주원료로 하는 화약제조방법에 성공하였다.

최무선은 곧 화약의 유리성을 정부에 보고하는 동시에 화약과 화약무기를 많이 만들어 왜구를 쳐부실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무능한 일부 관리들은 어리석게도 그의 제의를 반대하였다.

최무선은 실지 화약의 위력을 시위한 후에야 관리들을 납득시킬수 있었다.

이때 화약무기제작과 그것을 설치할수 있는 함선제조를 적극 도와나선 사람이 최영장군 이였다.

그의 도움으로 최무선은 대장군포, 이장군포 등의 각이한 포들과 화전, 철령전, 피령전, 철탄자, 류화, 주화 등 여러가지 포탄들과 불화살을 만들어낼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포들과 포탄, 불화살들을 장비할수 있는 견고한 전함 130여척도 건조하여 강어구에 배치하였다.

1380년 해도도통사가 되어 전국의 수군을 총지휘하게 된 최영은 화약무기로 장비한 전함을 실전에서 시험해보려고 베프고있었다.

그러던중 왜구가 500여척의 대선단을 끌고들어와 금강하구에 배를 댄 후 전라도의 여러 수군진영을 로략질하고있다는

급보를 받은 고려수군은 100척의 전함으로 급히 출동하게 되었다.

이윽고 배가 목적지인 전라도 진포에 접근하게 되자 최무선의 얼굴에는 류달리 심각한 표정이 어리었다. 그것은 다년간 고심끝에 만든 화약무기를 처음 사용하게 될 시각이 다가오고있기때문이였다.

고려함대는 왜구의 배를 향하여 돌진하였다. 적들은 여러선단을 끌고나와 고려함대를 포위하려고 하였다.

그 순간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포문을 열고 맹렬한 화포사격을 들이댔다. 철탄자와 철령전이 적선의 돛대와 갑판을 박살내고 화전과 주화가 불을 뿜으며 명중하자 배들은 일시에 불이 붙어 짙은 연기와 불길에 휩싸였다.

적들은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죽은자가 태반이였다.

사태가 급함을 알아차린 적들은 배머리를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기다리던 고려함선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용감한 수군들은 비호같이 적선에 뛰어올라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겼다.

이리하여 500여척의 적선은 크게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고려수군의 위력한 화약무기앞에 여지없이 녹아나고말았다.

이것이 화약무기를 처음으로 써서 왜구를 격멸한 유명한 진포해전이였다.

* * *

민족 음식 떡



예로부터 근면하고 재능있는 조선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서 나는 여러가지 음식재료들을 가지고 민족음식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습니다.

그가운데는 조선민족음식으로 전통화되어오고있는 떡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잡지를 보고계시는 동포여러분 가운데 아마 떡이라는 말만 들어도 입을 벙긋 열며 기뻐하는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듯 떡은 조선사람들 누구나 좋아하며 즐겨 만들어 먹고있습니다.

지난 시기 향간에서는 떡방아 찧는 소리와 떡치는 소리가 높이 울려야 명절기분이 나고 잔치기분도 난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명절은 물론 생일이나 결혼식 등 경사로운 날에 떡을 만

들어먹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고있습니다.

그럼 먼저 떡이란 어떤 음식인가 보기로 합시다.

지난 시기의 떡에 대한 이해와 민족고전의 자료들을 놓고볼 때 떡은 낱알이나 낱알가루를 찌고 치거나 삶거나 지저서 하나로 뭉친 음식을 말합니다.

풀기가 있어 떡떡 붙는다는데로부터 떡이라고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조선떡은 백미를 기본재료로 하여 만듭니다.

조선사람들은 떡을 만드는데 있어서 백미, 찹쌀 등 낱알자체의 향긋하고 구수한 맛을 살려왔으며 여기에 팔, 콩, 밤 등의 여러가지 고물을 묻히기도 하였습니다.

먼 옛날부터 정결하면서도 소박한것을 좋아하며 순수하면서도 담박한 맛을 즐기던 조선사람들의 독특한 구미와 기호에 맞게 발전되어온 떡은 조선민족특유의 주식물의 하나입니다.

떡은 그 종류와 제조법이 매우 다종다양합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기발한 착상과 독특한 가공기술로써 찌고 삶고 지지고 발효시키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종류의 떡을 만들어왔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모양과 형태를 빚어내고 다양한 문양을 찍어내며 아름다운 색깔을 낼수도 있습니다.

떡이 특색있는 주식물로 되게 된것은 같은 주식물인 밥이

나, 죽, 지짐과는 달리 손쉽게 만들어먹을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잡한 공정과 많은 재료를 필요로 하기때문입니다. 이로부터 떡은 매끼 해먹을수 있는 일상음식으로가 아니라 명절 등을 맞으며 만들어먹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절의 첫째가는 음식으로 꼽히는 찰떡, 설기떡, 흰떡 등을 들수 있습니다. 설날에 떡을 해먹는 풍습속에서 나온 《설달그믐날 시루연으러 다니기》, 《남의 떡에 설원다》 등의 속담은 오늘도 조국인민들속에서 즐겨 오가고있습니다.

찰떡은 잘 불군 찹쌀을 시루에 찌서 거기에 소금물을 뿌리고 한번 더 김을 올려 익힌 다음 절구나 떡돌우에 놓고 쳐서 만듭니다. 김이 문문 나는 찹쌀을 떡돌우에 단번에 얹어놓고 흥겨운 떡타령을 받아넘기며 떡을 치는 모습은 설날의 정서를 더해주는 이채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설기떡은 백미가루를 시루에 퍼고 삶은 팔이나 찹쌀가루를 골고루 뿌려 찌냈습니다. 설명절을 상징하는 음식인 흰떡으로 떡국도 만들었습니다.

동포여러분, 이렇게 떡에 대한 이야기를 펴나갈수록 우리의 눈앞에는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떡매를 번쩍 휘두르면서 기운차게 떡을 치는 남정들과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른 녀인들이 곁에서 일손을 거들어주는 조선민족의 특유한 풍취가 눈앞에 선히 그려집니다.

인터넷 《조선료리》홈페이지에서 팔고물찰떡의 열람자수가 가장 높다는 사실로 보아 세계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 사는 조선동포들의 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슬기롭고 근면한 조선민족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이 깃든 떡에 대한 이야기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글 본사기자 연옥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